

농촌경제연구원, 나주혁신도시 신사옥 내달 '첫삽'

이전기관중 14번째 ... 내년 상반기 준공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다음달 중순께 나주 혁신도시 신사옥 착공식을 갖는다. 한편을 비롯한 이전기관들이 신사

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농경연은 15개 이전기관 중 14번째로 신사옥을 착공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농경연연구원 신사옥 건설 입

찰에서 롯데영과 현대엠코 컨소시엄이 300여억원에 공사를 수주해 신사옥 설계에 착수했다. 농경연연구원 신사옥은 총 부지면적 3만702㎡, 연면적 1만5774㎡에 지상 8층 건물로 지어진다. 2014년 상반기에 신사옥이 준공되면 260여명의 본사 임직원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정부출연기관 중 한곳인 연구원은 중앙기 농업발전계획과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한편 15번째 마지막 이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정부의 공

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돼 전남 개발공사와 나주신사옥 부지 매입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부지 매입 안이 통과되면 신사옥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지남해 열린 3장사 추모제 모습.

진주성 3장사 추모제 화순서 11일 열린다

임진왜란 전사 의병장 최경회·김천일·고종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의병장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화순에서 열린다. 총의공 최경회 선생 호국정신선양회와 해주 최씨 종친회는 11일 오전 10시 화순군민회관에서 진주 축석루 3장사(三壯士) 총의공 최경회, 문열공 김천일, 효열공 고종후 의병장의 순국 420주기(七週甲)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주성 축석루에서 술잔을 들고 마르지 않는 남강처럼 영원하자고 맹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석루 3장사라고도 불린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정환담 광주항교 유교대학장, 배기운 국회의원, 홍이식 화순군수, 문병란 시인과 유립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최경회 선생은 화순, 김천일 선생은 나주, 고종후 선생은 광주 출신이다. 최경회 선생 호국정신선양회 강동원 회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보여주듯이 아직도 한·일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3장사가 남강의 푸른 물에 몸을 던져 장렬한 최후를 마친송고한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시-경북 문경 정보화마을 손잡다

특산물 등 상호 교류

나주평야마을, 송촌흥고추마을 등이다.

나주시와 경북 문경시 정보화마을이 상호교류를 통해 특산물 및 다양한 체험상품 활성화 방안 등에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지난 7일 문경시의 3개 정보화마을을 회원 30여명이 나주시를 방문, 나주시의 4개 정보화마을 및 로컬푸드나주배꽃 생활협동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문경시의 문경새재팔영마을, 문경오미자마을, 문경우로실마을과 나주시의 봉황화마을, 배꽃마을,

문경새재팔영마을 황용식위원장은 "우수 정보화마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나주를 찾았다"며 "자매결연을 계기로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시설 견학 및 운영실제 파악,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주와 문경시 정보화마을은 마을자원의 농산물 판촉활동과 관광발전을 위한 교류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장흥군 정보화교육장의 컴퓨터 기초 교육 과정.

장흥 정보화교육장 오후 1시~6시 개방

장흥군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강사와 주민간 1대1 멘토링 교육을 실시한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프로그램

별 집합교육 운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짜임새 있는 정보화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소셜네트워크 활용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정별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다. 교육 희망자는 군청 총무과(061-860-0296)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계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http://www.jangheung.go.kr)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 물축제' 6년 연속 관광축제 브랜드 대상

장흥군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한 '2013 장흥 물축제'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 '2013 올해의 관광축제 브랜드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 장흥군은 8일 서울 그랜드야트 호텔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기업체 임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올해의 관광축제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물과 숲-휴(休)'라는 축제의 주제가 생명의 근원인 물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특색자원을 잘 반영한데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1급수 탐진강의 시원함을 제대로 활용한 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의 편의 시설을 제공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북

고창 모양성제 내일 화려한 개막

조선시대 복식 가장행렬 재연

고창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제40회 고창모양성제가 10일 오후 화려한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4일간 대장정을 시작한다. 거리퍼레이드는 10일 오후 2시 실내체육관에서 출발해 군청과 터미널을 경유 모양성까지 이어진다. 퍼레이드에는 출정행렬기와 공군군악대, 고을기수단, 수문장, 취타대, 현감행차, 호위관, 원님 가마, 수문군, 읍민 농악단 등 조선시대 복식을 갖춘 가장행렬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여한다. 기념식은 국악예술단 '고창'의 연주에 이어 (사)고창모양성보존회 진남포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이

강수 고창군수 등의 축사, 봉화대 점화,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치러진다. 또 560년 전 모양성(고창읍성)의 축성 당시 참여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등 현존하는 17개 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시군의 깃발을 게양하는 고을기 게양식이 동리극약당 앞 광장에서 열린다. 고창군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성곽인 모양성은 사적 제145호로, 방장산을 둘러싸고 있으며 둘레 1648m, 높이가 4~6m에 달한다. 성벽을 밟으면 무병장수를 한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동·서·북의 3문과 치(雉) 6곳, 웅성, 수구문 2곳 등이 남아 있는 등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신관사도 부임행사 순수 남원시민 90여명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신관사도부임행사 공연단이 울거울 전극 주요축제에 연이은 초청공연으로 분주하다. 지난 2008년부터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신관사도부임행사 공연은 2013 내나라 여행박람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등에 초청됐다. <남원시 제공>

전주 시내버스 내달부터 20% 감차 결의

시의회 재정지원금 삭감 반발... 시민 불편 우려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의회의 재정지원금 예산안 삭감에 반발, 20% 감차(減車)를 결의했다. 신상여객 등 전주지역 5개 버스회사는 8일 "최고 비상총회를 열어 운송원가 부족분 17억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11월부터 20%를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보유한 382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70여대가 11월부터 운행을 멈추게 된다. 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원가부족액이 42억원에 달해 전

주시가 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10억원만 승인했다"며 "이 상태로는 적자가 심화해 정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버스회사들은 전주시가 시의회의 예산안 삭감분을 올해 결산 추경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모든 시내버스를 시에 인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들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가 지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내년 예산편성 앞두고 남원시, 주민설문조사

남원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주민설문조사는 오는 20일까지 남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쉽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내용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복지, 경제, 농축산 등 총 9개 분야를 대상으로,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군산 '진포예술제' 18일까지 열려

군산의 전통문화 축제인 '진포예술제'가 8일 개막 기념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군산 예술의전당 공연장과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45회째를 맞는 진포예술제는 고려시대 최무선 장군의 진포(군산의 옛 지명)대첩 승전을 기리는 행사로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올해는 '백토로 예술 성지! 희망의 군산예술!'이란 주제로 열린다. 개막 기념식인 '새만금 시민 한마당'을 시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45회째를 맞는 진포예술제는 고려시대 최무선 장군의 진포(군산의 옛 지명)대첩 승전을 기리는 행사로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보건소 '공공장소 금연 단속' 강화

전주시보건소는 8일 "공공장소 금연 단속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금연도시 전주'라는 이미지를 정착시켜겠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으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을 태조로와 은행로에 대해 단속반을 주간·야간반으로 운영해 금연 관련 법령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

화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및 은행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는 지난 7월부터 금연단속에 나서 지난달 말까지 2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261명에게 지도장을 발부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내장산 경내버스 한정면허 내일부터 운행

오는 10일부터 내장산 경내버스 한정면허가 운행된다. 내장산 경내버스 한정면허는 (유)대한국속관광에서 운행하며, 코스는 내장산 금선교(매표소)~탐방안내소까지 약 2.3km 구간이다. 비수기에는 차량 1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수기(10~11

월)에는 5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성인 1000원, 어린이(8세 이하) 및 노약자(65세 이상)는 500원이다. 경내버스 운행은 탐방객에게 특별하고 생동감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 '흥부와 놀부'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은 남원시 축제인 흥부제에 맞춰 오는 11~12일 예원당에서 2013 브랜드 공연인 창극 '흥부와 놀부'를 무대에 올린다. 창극 '흥부와 놀부'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판소리 다섯 마당의 창극화 사업의 하나로 제작한 것으로 2011년 '춘향전'과

2012년 '심청'에 이은 또 하나의 걸작이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명창이자 야망산조 명인인 김일규(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후보) 명창이 직접 대본, 연출을 맡아 70평생 닦아온 국악의 역량을 모두 담아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300t급 해우리 22호 본격 출항

군산해경, 취역식

군산해양경찰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인 해우리 22호가 11일부터 본격적인 해상경비 임무에 돌입한다. 2년 11개월의 건조 과정을 마치고 8월 군산 앞바다에 배치된 해우리 22호(322함)는 이날 오전 군산시 소통동 경비함정 전용부두에서 취역한다. 취역식에는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형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체정룡 군산대총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해양구조협회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예산 157억원이 투입된 322함은 전장 58m, 전폭 8.5m 규모로 3648마력 엔진 4대와 워터제트 4기가 장착됐다. 최대 35노트(시속 65km)로 항해가 가능하며 15노트로 순항시 2000마일을 항해할 수 있다. 전면에 20mm 벌컨포 1문과 후면에 50중기 기관포가 장착됐고 10인승 고속단정, 야간 열상 감지기, 카메라도 갖췄다. 이 경비정에는 고압 가솔분출원리를 이용한 워터제트 추진방식이 도입돼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